

2017 시민공익활동지원사업 미트웨어 프로젝트 신청서

1. 신청 개요	
프로젝트 제목	반려견을 위한 프로젝트 클래식
프로젝트 요약	반려견이 유기되지 않도록, 반려견의 모든 생애주기에 맞춘 ‘건강한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프로젝트 태그	#가슴으로놓아지갑으로기르는 #반려견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생 #펫티켓
프로젝트 기간	2017년 2월 11일~11월 11일
프로젝트 예산	150만원

위와 같이 2017 시민공익활동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4월 13일 대표자: 김금진

3. 프로젝트 스토리	
프로젝트 제목: 반려견을 위한 ‘프로젝트 클래식’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 소개	
반려견이 유기되지 않도록, 반려견의 모든 생애주기에 맞춘 ‘건강한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프로젝트 팀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팀과 활동, 구성원 소개)	
	저희는 2017년 2월 11일에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올 한 해 반려견 프로젝트를 위해 뭉친 5명의 구성원을 소개합니다. 저희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반려견을 키우고 있고,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사실! 그렇게 모인 저희는 지금까지 토요일 한적한 오후에 만나 프로젝트 밑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사진은 저희가 첫 모임을 가졌을 때, 저희의 동물 가족 구성원과 함께한 사진이에요. - 김금진 - 이번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됐고요. 일주일에 한 번 반려견 클래식과 출근합니다. 반려동물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일터에 다니고 있어 행복합니다. - 김보미 - 어렸을 때 부터 가족들과 강아지, 고양이를 키워왔어요. 길거리에서 구조한 동물들 이야기만으로도 하루는 꼬박 지새울 수 있어요.

- 김아리 - 오는 10 월 유기견 보호가 잘 되어있기로 유명한 독일에 여행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티어하임에서 저희 프로젝트에 영감받을 만한 좋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오려고 해요.

왜 이 프로젝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배경, 이유)

반려견과 함께 출근하고, 밥먹고, 여행하고 싶습니다.

대표 진행자(김금진)가 ‘클래시코’를 만난 이야기를 꺼내면서 프로젝트를 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클래시코는 예전에 버려져 안락사 하루 전에 금진의 가족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초반에 클래시코는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많이 표출되었습니다. 모두의 인내와 사랑덕분에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듯 서로 마음을 열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동생 협동조합에서 다른 반려견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는 동물 대표가 되었습니다.) 금진의 가족은 처음 반려견과 서로 잘 지내기 위해 좌충우돌 했던 시기를 지내고 나니 이러한 일이 비단 그들에게만 있지는 않을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걸까?’

작년 국내 등록된 반려동물은 97 만 9 천여마리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등록된 동물도 아우르면 100 만 마리는 충분히 웃돌겠죠. 안타깝게도 그만큼 거리에 버려진 동물들은 늘어나, 재작년엔 8 만 마리의 반려동물들이 버려졌다고 합니다. (출처: 허핑턴포스트 http://www.huffingtonpost.kr/2016/05/14/story_n_9976424.html) 개인의 사정(이사, 임신, 휴가)이나 반려동물이 아파 발생하는 치료비 부담 등으로 반려동물을 버리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기르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도 되는 걸까?’

이토록 우리 곁에 반려동물이 많아졌지만, 아직 사회와 로컬 커뮤니티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월세로 살고 있는 어떤 집에서 ‘반려동물 금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르고 있으며 집주인과 충돌이 있었다, 이동장에 반려동물을 넣고 택시를 타려고 했지만 승차 거부를 받거나 무척 싫어하는 내색을 보인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거든요.

저희는 단순히 개인의 책임만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잘’ 살 수 없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책임 의식을 넘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이 조성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죠. 저희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싶어하는, 기르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기대하시나요? (기대효과)

A. No more 유기견

- 유기견을 입양할 때, 반려동물을 기를 때 신중해지는 것.

B. 펫티켓&펫문화 조성

- 펫티켓을 지키는 사람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도 반려동물을 미워하지 않는 것.
- 반려동물을 반대하지 않는 집주인들이 많아지는 것.
- 반려견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장소가 늘어나는 것.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실 건가요?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No more 유기견

- 반려동물 생애주기 다이어리 제작
 - 1 단계 : 리서치
 - 벤치마킹 cf) 몰스킨 Dog Journal, 바잇미 샘플 구매, 책, 카라 방문, 잘 되어 있는 보호소 방문, 우리동생 협동조합 설문 실시
 - 2 단계 : 샘플 구성, 디자인 및 제작
 - 내용 : 강아지 사이즈/ 산책량/ 병원 기록/ 참고사이트 등의 리스트/ 잃어버렸을 때 대처법(근처 보호소 등)
 - 샘플 제작 : 출력, 제본, 디자인
 - 3 단계 : 원본 제작과 제작 비용 마련 방안 논의
 - 방안 : 크라우드 펀딩, 모금, (공익) 사업 제안 등..

B. 펫티켓&펫문화 조성

- 반려견 동반 여행: 온라인 콘텐츠/ 반려견 동반 패키지 여행
 - 내용: 애견 펜션, 식당 cf) 강원도 양양 멍비치
 - 아이디어: 반려인과 반려견의 스냅사진 촬영, 반려견을 위한 액티비티 혹은 맞춤 서비스 제공, 여행사를 컨택해서 프로그램을 판매
 - 결과물: 관련 온라인 콘텐츠(잡지 한 권 분량)를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
- 반려견 동반 파티
 - 내용: 파티를 매개로 한 반려동물 관계망 형성
 - 아이디어: 유기견 입양 키트 홍보와 설문 진행
 - 결과물: 지속적인 파티 주최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 올해 프로젝트 마무리하고, 2018 년 어떤 조직 형태를 구성해야 할지
- 손쉬운 아카이빙 방법